



## 인쇄업체 카드수수료 주유소·골프장보다 두배 넘는 게 말이 됩니까

대학생인 K군.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 면접을 볼 때면 으레 명함을 내밀곤 한다. 단순히 말로만 설명하는 것보다는 자신의 연락처와 블로그 등을 한번에 적어놓은 명함은 면접관에게 큰 인상을 주기 때문이다. 대학생인 K군뿐 아니라 요즘은 중·고등학생들도 나만의 명함을 만드는 일이 종종 있다. 한 면에는 자신이 좋아하는 그림이나 디자인을 넣고, 다른 한 면에는 핸드폰 번호와 이메일, 블로그 등을 적어놓는다. 말로만 자신을 설명하는 것보다 명함을 건네면 자신이 멋있는 사람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상대방 역시 자신을 다르게 보기 때문이라고 한다.

예전에는 명함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는 기획사나 회사를 통해 만들어야만 했지만, 요즘은 포토샵 기술과 함께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대학생은 물론이고 중·고등학생들도 자신의 명함을 쉽게 만든다. 그래서 명함인쇄 전문업체인 A사의 경우 오프라인만 했을 때에 비해 인터넷으로 접수를 받고 있는 요즘, 개인을 상대로 한 매출이 부쩍 늘었다. 그런데 A사는 매출은 늘었지만 수익은 줄어드는 기현상을 발견했다. 재무제표를 살펴본 결과 인터넷을 통한 카드매출은 급격히 늘었지만 수익의 일부분이 신용카드 수수료 등으로 처리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기 때문이다.

신용카드 수수료는 명함인쇄업체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다. 출력실, 연하장, 수입지판매 등 관련업체들도 함께 겪고 있는 문제다. 이는 신용카드를 사용할수록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개인들 뿐 아니라 중소기업의 신용카드사용도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본지에서는 인쇄사 및 관련업계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카드 수수료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 경제활동인구 1인당 신용카드수 4.4장

경제활동인구 1인당 신용카드 수는 2009년 4.4장으로 1990년 0.6장에 비해 7.3배가 증가했다. 경제활동을 하는 국민들이 보유한 신용카드 수가 20년 사이에 7배가 넘게 증가한 것이다.

경제활동인구 1인당 소지 카드는 1990년 0.6장에서 1993년 1.0장을 기록한 데 이어 외환위기 이전인 1997년에는 2.1장으로 2장을 돌파했다. 카드 대란 직전인 2002년에는 4.6장까지 치솟은 뒤 카드 대란 후 2003년 4.1장, 2005년 3.5장으로 하락세를 유지했다. 하지만 2006년 3.8장, 2009년에는 4.4장으로 다시 증가하고 있다.

신용카드 발급건수 역시 1990년 1038만4000장에서 2009년 1억699만3000장으로 10.3배 커졌다. 같은 기간 신용카드 가맹점 증가폭은 더욱 컸다. 1990년 58만 6000곳에서 지난해 1656만 8000곳으로 늘어났다. 20년 새 28.3배로 증가한 것이다.

이처럼 신용카드 발급과 가맹점이 크게 늘어난 것은 정부가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을 편 데다 카드사들도 적극적인 판촉활동을 벌였기 때문이다.

### 신용카드 일시불 비중 늘어 ... 1만 원 이하 결제 4명 중 1명꼴

신용카드의 이용 방식도 달라졌다. 과거에는 현금서비스가 선호되던 것과 달리 최근에 와서는 물품 구매를 위한 일시불이 크게 늘어났다. 지난 1990년 신용카드 이용실적 12조 6046억 원 중 현금서비스 비중은 57.8%에 달했고, 일시불은 23.9%, 할부가 18.4% 수준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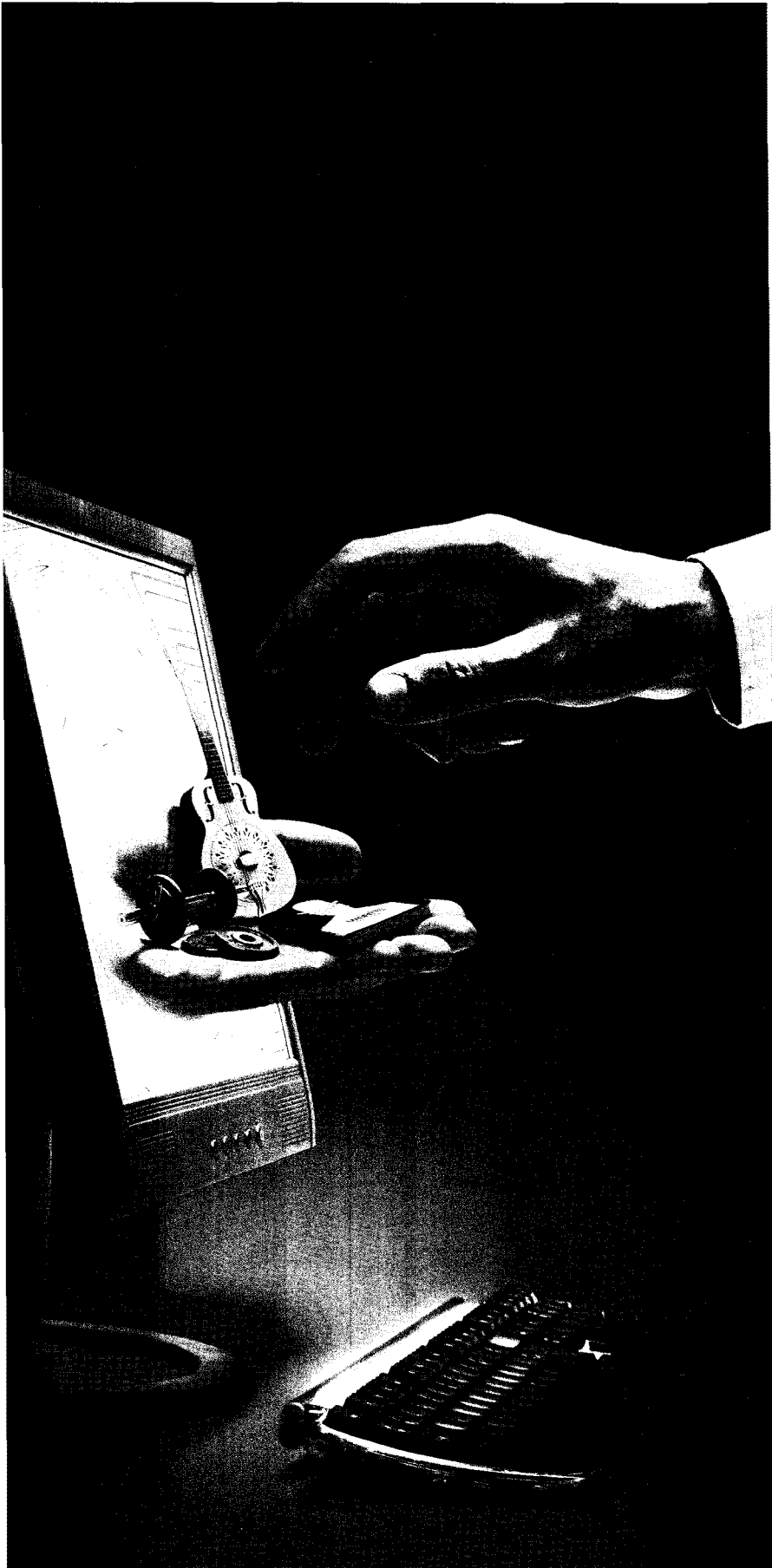
하지만 2009년 신용카드 사용액 454조 3980억 원 중 현금서비스 비중은 17.9%로 크게 줄어든 반면 일시불 비중이 66.3%로 경중 뛰었고, 할부는 15.8%를 기록했다.

개인이나 중소기업을 주 고객으로 하고 있는 인쇄사 및 출력실, 카드, 수입지 판매사에서의 신용카드 이용실적도 급격히 늘었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물품을 구매할 수 있거나, 오프라인인 경우에도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1만 원 이하의 소액결제 비중이 크게 늘면서 결제비용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1만 원 이하의 소액결제는 카드사뿐만 아니라 카드를 받고 있는 인쇄사나 출력실에게도 큰 골치다. 카드 결제에 따른 수수료에는 부가가치망사업자(VAN사)에 지불하는 비용, 전표매입 등 각종 고정비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소액결제의 경우 고정비 부담이 높아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카드결제를 거부할 수도 없다. 현행법상 카드 결제를 거부하면 가맹점은 처벌을 받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010년 1분기 신용카드의 1만 원 이하 소액결제는 건수 비중으로 25%에 육박하고 있다. 전업 카드사인 A사의 경우 1만 원 이하 소액결제 건수 비중은 2008년 1분기에는 20.8%였으나 2010년 1분기에는 25.1%까지 상승했다. 올해 말까지 이 상승률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카드업계의 한 관계자는 “결제 건당 거래 금액이 클수록 수수료에서 고정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지지만 소액결제가 늘어나면 오히려 역마진이 발생해 카드사와 가맹점들에게 부담이 된다. 손익분기점은 대체로 결제 금액 9000원에서 1만 원 정도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충무로에 위치한 B출력실의 한 사장은 “신용카드가 활성화되면서 현재 60~70%가 카드결제를 하고 있다. 워낙 가격경쟁이 심해 마진율도 거의 없는데다가 필름 한 장을 뽑아도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가 많다. 결제 금액이 1만 원 이하인 경우도 수두룩 하다”라고 말했다. 명함인쇄업체의 관계자 역시 “명함의 경우 2000~3000원의 소액이지만 홈페이지를 통해 결제하고 있으며, 결제방식 역시 신용카드가 9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처럼 카드사와 가맹점 양쪽이 부담을 갖고 있는 소액결제를 막을 수도 없다. 체크카드와 티머니 카드의 사용이 늘면서 소액결제 문화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식당, 편의점은 물론이고, 출력실, 수입지 판매사 등에서도 몇 천원도 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예사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만 원 이하 금액에 대해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법안이 추진되기도 했으나 올해 2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에서 최종적으로 빠졌다.

### 인쇄사 신용카드 수수료율 2.9~3.6%로 골프장에 2배 넘어

신용카드사들은 비슷한 유형별로 45개 업종을 묶어 매출 건전성, 수익 기여도 등의 요인을 고려해 가맹점 수수료율을 책정하고 있다. 각 업종당 최고, 중간, 최저 3가지로 나눠 수수료율 차등 적용하고 있다. 고액 거래가 많고 매출이 큰 가맹점은 수수료율이 낮고, 소액거래나 현금거래가 많은 영세업체는 수수료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작은 출력실이나 인쇄사라 할지라도 순이익이 아닌 연매출이 9600만원이라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 이처럼 너무 낮게 책정된 영세업자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율(일반가맹점 중간 기준)을 보면 주유소, 골프장, 종합병원은 1.5%로 가장 낮고, 대형할인점은 1.9~2.0%, 백화점은 2.1~2.7%다. 반면에 인쇄사 및 관련업은 2.9~3.6%, 안경점은 2.9~3.1%, 서점은 2.8~3.2%로 대형업체보다 높은 3.0% 이상이었다. 물론 유흥·사치업은 가장 높은 4.5%다.

인쇄사 및 관련업의 경우 비씨카드를 제외하고는 최고 중간 최저 기준없이 일률적으로 카드수수료를 적용하고 있었으며, 특히 현대카드는 3.6%까지 수수료율을 받고 있었다. 이는 주유소 골프장의 수수료율인 1.5%보다 두배가 넘는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었다.

카드업계에서는 ‘외상’으로 장사를 하기 때문에 나중에 돈을 받을 수 없는 위험이 큰 가맹점은 그만큼 수수료율을 높일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인쇄사, 출력실, 서점, 미용실이 골프장, 백화점보다 수수료율이 크게 높은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 연매출 9600만 원 이하만 영세업자로 인정

카드사에서는 카드 수수료를 일반가맹점과 영세가맹점으로 나눠 수수료율을 정하고 있다. 영세가맹점은 일반가맹점과 비교해 크게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체크카드는 1.5~2.1%를, 신용카드는 1.7~2.1%를 받고 있다.

그런데 카드사들이 수수료율 인하 대상으로 내세운 영세가맹점은 연 매출이 9600만원 미만인 중소기업만을 말한다. 그런데 연매출 9600만 원 미만이라는 조건이 지나치게 낮아 문제가 되고 있다. 연매출 9600만원은 재료비나 운영비가 거의 들지 않는 손톱관리실 등 아주 영세한 업체들에게나 통하는 조건이다. 아무리 작은 출력실이나 인쇄사라 할지라도 순이익이 아닌 연매출이 9600만원이라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 이처럼 너무 낮게 책정된 영세업자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게다가 인쇄사 및 관련업의 경우에는 매출에 상관없이 모두 일반가맹점으로만 등록되어 있다.

**체크카드 수수료도 2.5%로 비싸**

체크카드는 자기 통장의 잔액 범위 안에서 사용하는 카드다. 통장 잔고에서 카드 대금이 결제돼 페일 염려가 없는 체크카드지만 수수료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나 비슷하다. 일반적으로 2%대의 비싼 수수료를 물리고 있으며, 인쇄사 및 관련업의 경우 2.1~2.5%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다. 대부분의 나라들에서 직불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0.5% 미만인 것과 비교하면 매우 높은 수준이다.

2005년만 해도 체크카드 사용금액은 연간 7600억 원으로 신용카드 사용금액(258조5천여억 원)의 0.3%에 불과했다. 다소 부당한 수수료율이라고 해도 체크카드 결제를 위한 초기 전산투자 비용과 상대적으로 미미한 체크카드 사용금액 등을 감안하면 용인될 만한 여지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표 1〉 신용카드 사업자 현황 (2009. 12월말 기준)

구 분	사업자수	회사명(회원/ 제휴)
○ 전업카드사	7	
- 은행계	4	비씨, 신한, 산은캐피탈, 하나SK,
- 기업계	3	삼성, 현대, 롯데
○ 겸영 은행	14	경남, 국민, 기업, 농협, 대구, 부산, 우리, SC제일, 한국씨티, 제주, 수협, 전북, 광주, 외환
○ 유통계 겸영 신용카드업자	11	백화점, 쇼핑센터 등 유통업체
총 사업자수(전업 및 겸영)	32(21)	

〈자료 여신금융협회〉

〈표 2〉 신용카드 발급수 및 가맹점수(단위 : 천명, 천매, 매, 천점)

구 분	추계인구(천명)	경제활동인구(천명)	카드수(천매)	경제활동인구1인당 카드소지자(매)	가맹점수(천점)
1990	42,869	18,539	10,384	0.6	586
1991	43,296	19,109	12,099(16.5)	0.6	766(30.7)
1992	43,748	19,499	14,705(21.5)	0.8	948(23.8)
1993	44,195	19,806	19,401(31.9)	1.0	1,400(47.7)
1994	44,642	20,353	25,314(30.5)	1.2	2,055(46.8)
1995	45,093	20,845	33,278(31.5)	1.6	2,760(34.3)
1996	45,525	21,288	41,113(23.5)	1.9	3,461(25.4)
1997	45,954	21,782	45,705(11.2)	2.1	4,257(23.0)
1998	46,287	21,428	42,017(-8.1)	2.0	4,649(9.2)
1999	46,617	21,666	38,993(-7.2)	1.8	6,192(33.2)
2000	47,008	22,069	57,881(48.4)	2.6	8,611(39.1)
2001	47,343	22,417	89,330(54.3)	4.0	12,627(46.6)
2002	47,640	22,877	104,807(17.3)	4.6	15,612(23.6)
2003	47,925	22,916	95,517(-8.9)	4.1	16,949(8.6)
2004	48,082	23,370	83,456(-16.0)	3.6	17,095(8.6)
2005	48,294	23,743	82,905(-0.7)	3.5	16,124(-5.7)
2006	48,497	23,978	91,149(9.9)	3.8	17,037(5.7)
2007	48,456	23,993	89,565(-1.7)	3.7	14,701(-13.7)
2008	48,607	24,347	96,248(7.5)	4.0	15,612(6.2)
2009	48,747	24,063	106,993(11.2)	4.4	16,568(6.1)

〈자료 여신금융협회〉

그러나 2007년 체크카드 사용 금액은 1조8천억 원으로, 2009년에는 3조6900억 원으로 급증했다. 특히 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는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효과가 더 커서, 올해 체크카드 사용액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때문에 신용카드사들의 이런 '부당 이득' 규모도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체크카드 계좌 열어준 대가로 0.5%씩 꼬박꼬박 떼어가는 은행들**

우리나라 체크카드의 경우 계좌를 열어준 대가로 0.5%씩 은행에서 떼어간다. 예를 들어 체크카드로 10만원을 결제하면 카드회사는 사용자의 은행 계좌에서 10만원을 가져와야 하는데 은행은 계좌이용 수수료 500원을 떼고 9만9500원만 준다. 은행계좌를 사용한 대가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결제금액의 0.5% 수준으로 은행들이 가져가는 이 돈은 카드회사가 떠안는다. 신용카드에는 없는, 체크카드만의 숨은 비용이다. 2.0% 수준인 체크카드 수수료를 가운데 4분의 1인 0.5%가 체크카드 비용(계좌 이용 수수료)인 것이다. 물론 국민은행이나 외환은행, 우리은행처럼 은행과 카드사가 한 몸인 회사는 그런 비용을 내지 않는다.

또 하나 VAN 수수료도 문제다. 외국은 대부분 은행들이 직접 카드사업을 하고 직불카드도 은행 망을 사용해 결제를 하는 구조여서 추가 비용이 많지 않다. 그러나 우리나라 카드사들의 체크카드는 신용카드 결제 망을 사용하기 때문에 회당 150원 가량의 VAN 수수료를 신용카드와 똑같이 물어야 한다. 이런 인

〈표 3〉 연도별 신용카드 이용실적 (단위 : 억 원)

구분	신용카드 이용실적						합 계	체크카드이용금액
	일사불	%	할부	%	현금서비스	%		
1990	30,068	23.9	23,163	18.4	72,815	57.8	126,046	
1991	41,331	30.9	24,610	18.4	67,730	50.7	133,671(6.0)	
1992	51,358	32.8	28,458	18.2	76,962	49.1	156,778(17.3)	
1993	69,427	25.9	53,219	19.8	145,698	54.3	268,344(71.2)	
1994	109,586	26.8	79,164	19.3	220,534	53.9	409,284(52.5)	
1995	150,492	29.2	101,025	19.6	264,300	51.2	515,817(26.0)	
1996	203,460	32.3	122,783	19.5	304,085	48.26	30,328(22.2)	
1997	243,207	33.7	138,593	19.2	339,353	47.1	721,153(14.4)	
1998	206,695	32.5	101,613	16.0	327,259	51.5	635,567(-11.9)	
1999	302,289	33.3	124,050	13.7	481,486	53.0	907,825(42.9)	
2000	555,949	24.7	239,974	10.7	1,453,159	64.6	2,249,082(147.8)	
2001	1,283,527	28.9	473,554	10.7	2,676,594	60.4	4,433,675(97.1)	
2002	1,920,044	30.8	732,077	11.8	3,576,963	57.4	6,229,084(40.5)	
2003	1,906,716	39.7	504,157	10.5	2,374,563	49.8	4,805,436(-22.9)	
2004	1,883,645	52.6	418,801	11.7	1,276,048	35.7	3,578,494(-25.5)	
2005	2,133,747	58.6	452,041	12.4	1,052,376	28.9	3,638,164(1.7)	7,602.7
2006	2,276,715	61.8	490,277	13.3	915,696	24.7	3,682,688(1.2)	12,595.1
2007	2,548,364	64.0	575,705	14.4	857,821	21.5	3,981,891(8.1)	18,839.9
2008	2,875,134	64.6	690,302	15.5	887,588	19.9	4,453,024(11.8)	27,872.1
2009	3,012,743	66.3	716,723	15.8	814,514	17.9	4,543,980(2.0)	36,916.5

(자료 여신금융협회)

프라 사용료는 체크카드로 10만원을 쓰던 1만원을 쓰던 마찬가지로여서 소액결제가 많아질수록 카드사의 부담은 더 커진다. 게다가 체크카드의 경우 연회비도 없는데 각종 포인트 적립과 할인혜택에 따른 비용이 적지 않다는 점도 수수료를 대폭 낮추기 어려운 이유로 꼽는 대목이다.

### 외국과의 비교

국내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외국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우리나라 평균 수수료율이 2.2%인데 비해 호주와 프랑스는 평균 1%를 밑돌고, 영국은 1.6, 미국이 2% 선이며, 선진국 가운데 우리보다 높은 곳은 스위스뿐이다. 각 나라별로 결제구조의 차이, 소비자의 지출성향 및 카드사용실적 등 시장 환경이 다르므로 단순 비교는 물론 곤란하다. 하지만 우리나라 카드사가 시장금리, 가맹점의 평균마진율에 비해 지나치게 높게 책정한 카드수수료율(2.5~3.6%)과 대형가맹점에 비해 중소가맹점이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은 개선해야 할 문제다.

강삼중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지원실 실장은 “국내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외국에 비해 여전히 높다. 물론 각 나라별로 시장 환경이 다르므로 단순 비교는 어렵다. 하지만 카드사가 시장금리, 가맹점의 평균

〈표 4〉 인쇄 및 대형업체의 신용카드 수수료율

		롯데카드				비씨카드				현대카드				신한카드			
		일반가맹점		영세가맹점		일반가맹점		영세가맹점		일반가맹점		영세가맹점		일반가맹점		영세가맹점	
		신용	체크	신용	체크	신용	체크	신용	체크	신용	체크	신용	체크	신용	체크	신용	체크
인쇄사	일률적용	3.5	2.2	-	-	2.9~3.1	2.1	-	-	3.6	2.5	-	-	3.02	2.5	-	-
	최고	2.1	2.1	2.1	2.1	2.0	2.0	2.0	2.0	3.3	2.5	2.1	2.1	2.05	2.05	2.05	2.05
안경점	중간	3.15	2.2	2.1	2.1	2.95	2.1	2.0	2.0	3.5	2.5	2.1	2.1	3.1	2.5	3.1	2.5
	최저	3.5	2.2	2.1	2.1	2.95	2.1	2.0	2.0	3.5	2.5	2.1	2.1	3.3	2.5	3.3	2.5
서점	최고	2.1	2.1	2.1	2.1	2.0	2.0	2.0	2.0	3.12	2.5	2.1	2.1	2.05	2.05	2.05	2.05
	중간	2.97	2.2	2.1	2.1	2.92	2.1	2.0	2.0	3.28	2.5	2.1	2.1	2.89	2.5	2.05	2.05
	최저	3.5	2.2	2.1	2.1	2.92	2.1	2.0	2.0	3.52	2.5	2.1	2.1	3.3	2.5	2.05	2.05
골프장	최고	1.5	1.5	-	-	1.5	1.5	-	-	1.5	1.5	-	-	1.5	1.5	1.5	1.5
	중간	1.5	1.5	-	-	1.5	1.5	-	-	1.5	1.5	-	-	2.88	2.5	2.05	2.05
	최저	1.5	1.5	-	-	1.5	1.5	-	-	1.5	1.5	-	-	3.3	2.5	2.05	2.05
주유소	일률적용	1.5	1.5	1.5	1.5	1.5	1.5	1.5	1.5	1.5	1.5	1.5	1.5	1.5	1.5	-	-
	최고	1.5	1.5	-	-	1.5	1.5	-	-	1.5	1.5	-	-	1.5	1.5	-	-
	중간	1.5	1.5	-	-	1.5	1.5	-	-	1.5	1.5	-	-	1.5	1.5	-	-
종합병원	최저	1.5	1.5	-	-	1.5	1.5	-	-	2	2	-	-	1.8	1.78	-	-
	최고	1.7	1.7	1.7	1.7	1.7	1.7	-	-	1.54	1.5	1.5	1.5	1.85	1.85	1.85	1.85
	중간	2.0	2.0	2.0	2.0	1.9	1.9	-	-	1.8	1.8	1.8	1.8	2.0	2.0	2.05	2.05
대형 할인점	최저	2.7	2.2	2.1	2.1	2.5	2.1	-	-	2.49	2.3	2.1	2.1	2.08	2.06	2.05	2.05
	최고	2.0	2.0	-	-	2.05	2.05	-	-	2.0	2.0	-	-	1.84	1.84	-	-
	중간	2.0	2.0	-	-	2.7	2.1	-	-	2.4	2.4	-	-	2.1	2.1	-	-
백화점	최저	3.0	2.2	-	-	3.24	2.1	-	-	2.69	2.4	-	-	2.83	2.5	-	-
	최고	1.85	1.85	1.85	1.85	2.0	2.0	2.0	2.0	2.0	2.0	2.0	2.0	1.85	1.85	1.85	1.85
	중간	2.0	2.0	2.0	2.0	2.0	2.0	2.0	2.0	2.2	2.2	2.1	2.1	2.69	2.5	2.05	2.05
슈퍼마켓	최저	2.0	2.0	2.0	2.0	2.65	2.65	2.0	2.0	2.46	2.3	2.1	2.1	3.3	2.5	2.05	2.05

(자료 여신금융협회)

〈표 5〉 미국의 이용실적(신용판매부분)

(단위 : 백만매, 백만건, 10억 달러)

구분	신용카드			직불카드		
	발급수	거래건수	이용액	발급수	거래건수	이용액
2000	1,440.41	15,899.59	1,241.69	234.55	8,290.73	311.02
2001	1,425.02	16,788.90	1,298.71	253.48	10,796.62	388.06
2002	1,445.90	17,182.27	1,372.37	260.4	13,464.33	481.28
2003	1,284.90	18,030.50	1,449.75	262.6	16,216.80	588.9
2004	1,422.30	18,990.00	1,606.67	277.7	18,760.00	705.71
2005	1,447.87	20,757.03	1,766.95	279.71	22,222.28	870.64
2006	1,487.33	22,368.47	1,946.77	355.05	26,054.55	1,024.52
2007	1,492.63	23,622.09	2,109.84	454.03	30,268.83	1,183.75
2008	1,440.30	23,910.80	2,153.46	591.3	34,238.70	1,346.86

(자료 여신금융협회)

〈표 6〉 일본의 이용실적(신용판매부분)

(단위 : 백만매, 백만건, 10억 엔)

구분	신용카드			직불카드		
	발급수	거래건수	이용액	발급수	거래건수	이용액
2000	231.68	2,045.56	21,790.00	320	3.22	150
2001	244.59	2,260.29	23,270.00	340	6.16	310
2002	254	2,297.09	23,270.00	360	8.25	430
2003	263.62	2,450.00	26,580.00	390	9.49	530
2004	273.33	3,050.23	29,160.00	390	10.95	710
2005	289.05	2,792.05	32,170.10	394	11.76	800
2006	292.66	4,547.58	34,769.50	407	10.92	790
2007	308.59	5,047.60	38,780.10	421	11.52	770
2008	317.83	-	42,434.50	409	12.44	770

(자료 여신금융협회)

마진율에 비해 지나치게 높게 책정한 카드수수료율(2.5~3.6%)과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동일업종임에도 불구하고 대형가맹점에 비해 중소가맹점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수수료율은 부담하는 것은 문제다"라고 말했다.

우리나라 정부도 호주처럼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에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서야 한다. 호주의 경우 비은행금융기관의 신용카드업 취급허용, 정산수수료 산정기준의 제정 등을 통해 정부당국이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를 유도하고 있다. 특히 합리적 기준에 의하여 정산수수료를 결정하기 위해 정산수수료 산정시 비교지표 역할을 하는 기준수수료율(Benchmark Rate)을 도입함으로써, 신용카드사들이 가맹점에 부과하는 정산수수료율의 가중 평균값이 기준수수료율을 초과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호주는 기준수수료율 도입 이후 정산수수료는 평균 0.95%에서 0.55%로 인하됐다. 정산수수료 인하는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이어져 2003년 11월 1.40%였던 가맹점수수료가 2006년 6월 0.89%까지 인하되었다.

또한 일정 금액 이하의 소액결제는 가맹점이 현금 결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중소기업인들의 요구사항이다.



i n t e r v i e w

## “불합리한 수수료를 체계 개선 최선”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지원실 강삼중 실장



최근 매출부진 등으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너무 높다는 여론이 팽배하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지원실에서는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벌였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4월 중소기업의 수수료율이 인하되었다. 하지만 여기에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신용카드 수수료를 낮추기 위한 노력을 벌이고 있다. 소상공인지원실 강삼중 실장을 만나 카드수수료율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카드수수료가 상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인가?

외환위기 이후 정부의 신용카드 활성화정책에 힘입어 신용카드사용이 단기간에 급증했다. 민간소비 중 카드결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9년 15.5%에 불과하였으나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 이후 급격히 확대돼 2009년 말 58.9%를 차지했다.

여신전문협회 및 한국은행에 따르면 2009년도 가맹점들의 신용카드사용액이 304조원에 달하고 있다. 평균 가맹점수수료율을 2%로 가정하면 2009년도 신용카드를 받기 위해 가맹점들이 지

불한 비용(수수료)이 약 6조원에 이른다. 자영업자의 경우 업종별로 차이는 있지만 보통 매출액 대비 이익률이 10% 수준인 것과 금리를 감안하면 3~4%의 카드수수료율은 영업순이익의 30~40%를 차지해 자영업자에게는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식당, 카센터 등은 통상 월수입의 20~30% 내지 연간 수입의 2개월분 이상을 카드수수료로 지급하고 있으며, 영업이익률이 낮은 업종일수록 그 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카드수수료율이 낮춰졌다고는 하나 골프장, 대형유통매장과 비교해 중소기업의 수수료율이 높은 것이 현실이다. 수수료율 이외에도 영세가맹점 기준금액이 너무 낮다는 얘기가 많다. 중앙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수료율은 어느 정도이며 영세가맹점 기준금액은 얼마인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이유는 형평성에 불만이 있기 때문이다.

신용카드사는 대부분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가격협상력에서 우위를 가지고 있지만, 대형마트 등 대형가맹점에 대해서는 협상력이 낮아 상대적으로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 일례로 2004년 이마트는 BC카드의 가맹점 수수료 인상에 맞서 BC카드와의 가맹점 계약을 해지한 바 있었다.

협상력 차이로 인해 동일업종임에도 불구하고 규모에 따라 수수료율을 달리 적용하는 점을 개선하고, 업종별로 최고 2.5%~3.6%에 이르는 수수료율을 2.5% 이하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최근 관련법 개정으로 지난 4월부터 연간매출액 9600만원 미만 가맹점에 대해서는 대형마트 및 대형백화점 수준(1.6%~2.15%)으로 수수료율을 인하 적용하고 있고, 단체설립도 가능하다. 그러나 여전히 높은 수수료율을 부담하고 있는 연간매출액 9600만원 이상의 가맹점은 가맹점단체를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고, 연간매출액 9600만원 기준도 너무 낮아 실효성이 없다. 가맹점단체 설립기준을 현실화시켜 소기업 및 소상공인 가맹점으로 확대해야 한다.

그동안 카드수수료를 인하를 위해 중앙회가 추진했던 일들은 무엇인지?

중앙회는 2002년부터 '수수료율 개선을 위한 간담회 개최', '카드수수료 제도개선 방안을 17대 대선 및 18대 총선 공약과제 제시' 등 정책이슈화하며 카드수수료율 체계 개선을 위한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특히 2009년 3월에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주관하는 카드수수료 제도개선 TF에 참여하여 카드수수료율 구조의 문제점 및 대안 제시, 청와대 경제수석(2009.2) 및 한나라당 정책위(2009.1)와의 간담회를 통한 수수료 인하 정책 건의 등을 통해 4차례에 걸친 카드수수료율 인하조치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2010.3)에 크게 기여했다.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카드수수료율 제도개선 주요 내용으로는 영세가맹점에 수수료 협상을 위한 단체구성 권한 부여, 카드사에게 수익성 분석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권 명시, 세금 이외에 벌금 등으로 신용카드 결제범위 확대, 신용카드가맹점에서 국제·지방세 수납대행 허용 등이다.

2010년 4월 시행된 제4차 카드수수료율 인하에서는 연간매출액 9600만원 미만 중소가맹점 중 재래 시장내 가맹점은 2.0~2.2%에서 1.6~1.8%로 인하되었다. 재래시장밖 가맹점 역시 2.3~3.5%에서 2.0~2.15%로 낮아졌다.

체크카드의 경우 카드사가 대행만 하고 있는데도 수수료율이 높다. 이 부분에 대한 개선여지는 있는가?

체크카드는 직불카드의 단점(사용가능 가맹점수 및 이용시간 제한)을 보완하고 장점을 살리려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으로 전국 신용카드가맹점에서 24시간 사용이 가능하고 전자상거래나 해외에서도 사용할 수 있으며, 구매와 동시에 즉시 은행계좌에서 대금이 결제돼 신용불량자 양산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카드사들이 회원 확보에 있어 신용카드보다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수수료율의 근거인 자금차입비용, 대손비용, 연체관리비용 등이 발생하지 않음에도 신용카드와 별반 차이없는 2.0~2.5%의 수수료율을 부과하고 있어 활성화가 미흡한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신용카드 사용금액 비중은 2008년 말 현재 44.5%로 미국(14.9%), 캐나다(18.3%) 등 여타 비교대상 국가보다 월등히 높았으나, 직불 및 체크카드의 비중은 2.6%로 미국(9.3%), 캐나다(10.5%)에 비해 낮은 상황이다.

중소가맹점의 경영부담이 되고 있는 수수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 추진과 병행하여 체크카드(직불카드 포함) 활성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자금차입비용, 대손비용, 연체관리비용 등의 발생이 없는 체크카드 수수료율 인하 가능성은 충분

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체크카드 활성화를 위한 소득공제 한도 확대 등 제도적 개선 필요한데, 25%에서 30%로 인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중기청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직불카드 사용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직불카드와 체크카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직불카드와 체크카드 모두 통장의 예금잔액 범위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할부구매는 불가능함으로써 사용자 입장에서는 과소비를 방지하고 은행이나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이용대금에 대한 연체부담이 없다는 장점이 있다.

직불카드의 경우 별도로 계약을 체결한 직불카드 가맹점(약 30만 개)에서 금융공동망 가동시간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으나 수수료율은 1.0~2.0% 수준으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에 비해 낮다는 장점이 있다.

체크카드의 경우 사용이 제한되는 직불카드와 달리 전국 신용카드가맹점에서 24시간 사용이 가능한 것이 장점이다. 하지만 예금잔액 내에서 구매와 동시에 결제하여 이용대금 연체 가능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수수료율이 2.0~2.5% 수준으로 신용카드와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이 단점이다.

한편 현재 수수료율은 직불카드는 1.0~2.0%, 체크카드는 2.0~2.5%, 신용카드는 2.0~4.0%다.

수수료율 인하와 관련하여 추진하고 있는 계획은 무엇인지?

동일업종임에도 불구하고 협상력 차이에 따라 대형가맹점 보다 중소가맹점이 높은 수수료율을 부담하고 있는 불합리한 수수료율 체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우선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시행되지 않고 있는 카드수납 의무 규정을 폐지하거나 1만원 미만 소액결제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 발행 등을 조건으로 카드수납을 거부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여 중소가맹점의 경영개선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코자 한다.

연간매출액 9600만원 미만 중소가맹점에 대해 수수료율 등을 협상할 수 있는 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가맹점단체 설립 기준을 연간매출액 9600만 원 이상 중소가맹점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다.

이밖에도 거래투명성을 유지하면서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시켜 줄 수 있도록 수수료 부담이 작은 체크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제도 활성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임남숙 차장 sang@print.or.kr